

# I. 원불교 和同 프로그램

-교당 및 기관 동거 교역자간 이해·친화·협력 증진을 위한 시도-

이 명 희

(수위단회사무처, 연구원)

## 목 차

1. 시작 하는 말 .....	5
2. 본 프로그램의 동기와 목적 .....	6
3. 기대되는 효과 .....	9
4. 본 프로그램의 특징 .....	11
5. 본 프로그램 운영상 유의할 점 .....	11
6.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구들 .....	12
7. 진행 일정 .....	13
맺는 말 .....	15

## 1. 시작 하는 말

원기 82년 현재 교단은 [교화 실용주의]를 내걸고 교도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거교적 차원에서 중범사님을 위시하여 전 출가·재가 교역자와 교도가 한 마음 한 몸으로 교화에 전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화의 장애요소들을 찾아내어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의 교화활동이 될 것이다. 교단내에는 교화와 관련하여 반드시 풀어야 할 난관이 적지않지만 그 중에도 교당내 거주하는 교역자간의 화합을 우선 과제로 잡아 보았다. 동거교역자간의 갈등은 대외적인 교도 교화 이전에 전무출신으로서의 보람있고 의미있는 삶에 대해 회의를 품게 만들뿐 아니라 자칫하면 출가생활의 의미마저도 약화시키게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전 교단적인 처방의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주제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당 내에 함께 거주하는

교역자간의 화합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는다. 동거 교역자를 하나의 가족단위로 보고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종의 가족적 정서를 받아시키고 회복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교역자간 화합을 이루는 해법을 삼았기 때문이다.

## 2. 본 프로그램의 동기와 목적

1) 교당교화는 교단교화의 중심통로일 뿐만이 아니라 교화,교육,자선의 교단 삼대사업의 실질적인 거점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교화란 사람의 마음에 감명을 주고 그 마음(교화자의 마음씀)을 본받아 교법을 따르고 실천하게 하며 이를 관리해 나가는 것을 주로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화의 요체는 인화에 있고 인화는 교화체(교화) 구성원간의 인간관계가 즐겁고 행복한 정서를 샘솟게하는 창조적 관계를 이루지 않고는 안된다. 자신이 맛보지 못한 것을 상대에게 줄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하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교화의 핵심기지인 교당거주 교역자간의 인화와 협력은 바로 교단의 교화에 있어 성쇠를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 반면에 현재 교당 거주 교역자중 일부가 함께 기거하는 선후진, 혹은 선후배간에 만남의 의미와 기쁨을 확인하지 못하여 갈등을 안고 살거나 혹은 적정한 협력관계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교단적, 개인적 에너지 소모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일회적으로 함께 살게되는 어떤 우연한 인연지사로 간주하고(2-3년간의 임지만료로 그 사람과의 임기만 마치면 이 고통도 끝나리라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기만은 어려운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가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인화와 협력의 물꼬를 트지 않는다면 심각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소수이긴 하지만 젊은 교역자들이 상급 교역자와 일말의 상의도 없이 교단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교무들로서는 교당의 일손이 딸리면서도 부교무 받기가 두렵다고 하는 발언이 공공연히 나도는 현실도 이를 판가름하는 한 지표가 된다.

이러한 현상에 도달하게 된 배경으로는 개인적인 요인과 여러 가지 시대적 교단적 요인이 중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그러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기보다 우선 현실적인 치유책의 일환으로서 교당의 화합에 일조하려는 목적으로 착수되었다.

2) : 현재 교단의 현장교화 인력은 대부분 여자 교역자들로 구성되어 이끌여지고 있다. 약 1,600 여명의 교역자중 절반인 800명 정도가 교화일선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 중 630 여명이 여자 교역자임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80년 통계

상황을 보면 450개 교당중 220여개가 단독 교무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이중 200개 가량은 공양원도 없이 완전한 단독교무 형태이며 그 밖의 220여개 가량의 교당중 교구청과 약간의 교당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가 교무와 부교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교당 동거 교역자중 여자 교역자끼리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도 기지의 사실이다.

우리 교단은 아직 역사가 천단하여 교도기반이 취약하고 또한 경제적 받침이 부족한데다가 국가전반적인 유희인력 부족등의 현실이 겹쳐 교당내 인력의 필요부분을 거의 대부분 교역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역자간 협력과 인화는 교단과 교당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동거하는 교역자간에 친밀하고 따뜻한 동지애나 가족적 정서로 보람과 만족을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노정되어 서서히 보이지 않는 교단의 큰 짐이 되고 있다. 이러한 풍조가 보다 교단적으로 만연하기 전에 동거하는 교역자간의 만남을 생산적으로 이끌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게나마 교단의 친화풍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특히 본 프로그램에 가족프로그램의 성격을 부여하게 된 까닭은 우리 교단의 전통적인 에너지를 회복하고 교역자간의 만남을 새롭게 하는 길이 교당거주 교역자간의 가족적 정서를 재인식하고 이를 가꾸어 가도록 하는 것을 중심목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3) : 가족적 정서를 중심포인트로 한 이유는 앞에 드러난 바와 같이 교당 교화 전문인력의 대부분이 독신(여자교무) 교역자라는 것이 첫째 이유이다. 많은 교역자의 독신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출가이전의 가족적 정서가 거의 마모될 뿐만 아니라 독신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정서적 부담에 대한 교단적 치유의 노력도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하여 적지않은 교역자의 정서적 기반이 건조해지고 이러한 요인이 교단 교화의 硬化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었다. ‘가족’이라 하면 단순히 한술밥을 먹으며 어울려 산다는 의미외에도 서로의 특성을 감내하고 고충을 이해하며 오랜동안의 이해와 사랑을 기반으로 구성원의 성장을 위한 헌신과 희생조차 가능한 특별한 분위기를 떠올릴 수 있다. 동서와 고금을 물론하고 인류의 수많은 역사와 함께한 가족적 정서 속에는 자신의 分身格인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해아릴 수 없는 부모의 사랑외에도 형제를 중심으로한 희생과 양보의 훈훈한 비화들이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가 하면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우리 교역자들은 원불교라는 회상에 입문하여 한 분의 스승을 모시고 하나의 진리관으로 공동의 이념과 취지하에 출가하여 일하고 공부할 뿐 아니라 교역자로서의 출가를 전후하여 이미 5-6년간의 공동생활을 경험한 바 있는 사람들이다. 더욱이 이들이 지니는 가족적

정서는 구도를 위한 서원과 세상을 위한 뜨거운 헌신의 정열을 기본으로 하며 무엇보다도 사적이 아닌 공적인 정서를 중심으로 남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잘 되살려 활성화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혈연보다도 훌륭한 가족애와 동지애가 꽃피게 되어 훈더운 인생의 기쁨과 법열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교단적 에너지 상승효과를 현저히 높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4) : 애초에 사제간, 선후진간, 동지간에 살뜰한 정의가 넘치는 가족적 공동체로 출발한 우리 교단은 연령을 초월한 구법정신과 훈훈한 동지애가 조화롭게 어울린 이상적 가족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①교조의 열반과 교단적 연륜을 더하면서 가족적 정서보다는 보다 조직적인 가치체계가 앞서고 선후진간의 법도등 권위적인 위계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반면에 사회국가적 풍토는 해방전의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점차 탈피하여 능력중심의 기능사회가 자리를 잡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부교무군)와 기성세대간(선진, 교무군)의 정서적 갭은 날로 증폭되어갈 수밖에 없었다. 또한 ②오랜기간 지속된 독신 교역생활과 私的인 대화의 단절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침체되고 건조해져서 교당 교역자간의 인간적인 만남이 희박해진 점, ③세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회 유흥인력의 격감과 여자 전무출신 지원(예비교역자 교당 근무자)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많은 신세대 부교무들이 주방업무를 거의 전업하다시피 하게 된 현실이다. 주방업무는 사소하다면 사소한 일이지만 오히려 그 사소함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교화업무보다는 그 사소한 업무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자체가 젊은 교역자의 정서를 심각하게 침식하게 된다. ⑤더욱이 단 두사람간의 감정이 서늘해질 경우 두 교역자간의 대화와 조화로운 타협을 유도할 제3의 조정역이 없으므로 서로간에 상호조율 보다는 오히려 침묵과 불만이 증척되기만 할 뿐인 것도 교당의 생활을 굳게하는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이러한 부조화가 한두 경우의 우연한 인연 지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그 사람과 어쩌다 기질이 맞지 않거나 혹은 특별한 전생사로 인한 일이라니 하여 서로 피하고 부딪치지만 앓다가 임기만 채우면 해결되리라는 소박한(?) 진단들이 가능했던 것 같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선배교무로서 후배(부교무)와 직면하기를 두려워하고 새 교무들은 교무를 잘 못 만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이상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 안 맞으면 가능한 맞춰보려는 노력보다 연말이 당도하기만을 기다리거나 여차하면 교단을 등지는 이유로 합리화시킬 정도로 그 증상이 진전되었다.

이와 같은 전후 세대간의 교통장애는 교단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개인·집단적인 다양한 요인과 함께 세월의 누적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누

구를 닦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다. 다만 모두가 공동의 과제임을 자각하고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 해야하리라는 점을 필연의 요청지사로 삼을 뿐이다. 한가지 덧붙일 점은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서 전술한 바 복합적 요인들로 초래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손댈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거니와 다양한 상반되는 요구를 동시에 만족하게 한다는 것도 난감한 일임을 통감하였다. 따라서 극히 간결한 주제와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부수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이로부터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보다 심중한 문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 본 프로그램에서는 ◆우리의 교리정신에 입각하여 ◆근본적으로 구성원의 가능성(성품)을 확신하고 그들이 지닌 일심과 알음알이와 실행력을 가급적 충실히 재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자연스럽고 구체적인 생활 자체를 훈련프로그램으로 설정하므로써 ◆사실적이고 진리적인 훈련의 또 다른 모델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기본전제에 따라서

① 교당 생활구조를 훈련배경으로 설정하며 ②선후배 교역자간(동거 교역자)의 직접 만남을 주선하고 ③효과적인 의사전달(글로 써서 표현하기 등)로 ④상호 상생의 원만한 생활구조를 이끌어냄으로써/⑤ 훈련에 참가한 교역자 자신들의 가슴과 지혜에 의해서 교당생활 속에 일어나기 쉬운 크고 작은 제 문제에 대한 조정을 스스로(그리고 상호간에)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이로써 상호이해와 양보, 성장이 기대되는 이상적인 교당생활(처처불상 사사불공)의 産室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 3. 기대되는 효과

(1) 신앙 실천---사생일신 · 처처불상 · 사사불공의 실천.

(2) 가족적 정서 고양---장기간 독신생활에 익숙한 대부분의 교당 교역자들의 경우 상실되고 마모되기 쉬운 함께함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혹은 부활시키고 혹은 새롭게 발아되도록 촉진함

(3) 최소 단위를 통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훈련---대단위 인력의 감응과 화합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교화의 장을 인도하는 실질적인 실력이 증진되는 효과.

(4) 상호 성장---둘 내지는 세 사람의 교역자가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서서 알뜰한 공부인의 관계 또는 구도자로서 인생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도반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기회가 됨. 이로써 교역자의 연륜이 더할수록 성리의 체험이 깊어지고 실질적인 수용의 폭과 깊이가 확장, 심화된다면 이것이 바로 명실상부한 교단의 성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당 교역자간의 원만한 생활리듬의 축적을 통해서 교역자의 정신적 성장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나이든 교역자가 교단의 자람이요 자산이라는 희망적인 구조로의 인식전환 기회가 됨.

(5) 세대차 축소---민주적 생활모델 창출---현대사회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의 하나인 세대차는 과거사회가 느린 진행으로 말 그대로 (백년간을 마디로 하는) 한 세대간의 간극을 세대차로 보았다면 근래는 십년도 아닌 반십년 간에도 심각할 정도의 문화적 차이, 사고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었다. 겉으로는 발랄한 것 같지만 對人恐怖 症候群이 바로 최근세대가 집단적으로 앓고있는 병이라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헤드폰을 끼고 차를 타거나 거리를 홀로 걷는 아이들, 아침부터 밤까지 심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족적 만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거리에서 집에서 홀로 헤메이는 현대의 젊은 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집단 속에서도 솔로를 체질화하여왔다. 그러한 시대적 흐름의 일단에 젖고 앞으로 더욱 그러한 문화에 익숙해서 성장하고 출가할 후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상처없이 서로의 의식을 공유할 기회를 열어주지 못한 채 24시간을 동거하는 생활권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무리려니와 더군다나 권위적인 교당체제는 견디기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 그런가 하면 기성 교역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양보할 수 있어도)선후배간의 위계만큼은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팽팽한(?) 양극간의 대립적 정서를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는 없겠으나 소집단을 통한 가족적 공동생활과 상호대화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선후 세대간에 신선한 만남의 기쁨을 유도하고 이해와 양보와 사랑의 마음이 싹트는 작은 계기를 형성한다면 세대간의 다가섬이 의외로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경험의 이식---상호간의 佛性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 삶의 경험, 표현과 조정의 체험을 심어줌으로써 생활공간을 달리하더라도 서로간에 스스럼없는 표현과 조정으로 삶의 조화율을 높이게 됨

### 3-1. 그 밖의 효과들

(1) 개인적 처방(훈련 및 치유를 위한)이 가능한 소규모 훈련원을 마련, 운영함으로써 장차 교역자 문제만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교역자 전문 연구원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됨.

(2) 교역자간 화합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적 프로그램의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 교역자간 화해 ▶ 교역자 부부 ▶ 교역자 가족 ▶ 교도 가족 ▶ 일반 부부 문제 --- 원불교적 심리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게 됨.

## 4. 본 프로그램의 특징

◇ 구체적 생활공간 설정을 전제로 한 생활속의 훈련--- 생활의 구체성을 고려하고 이를 직접 훈련의 기재로 활용함으로써 서원이나 상호간의 호감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가능한 한 다양한 각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함.

◇ 기록(그림)을 통한 자기점검 및 의사전달--- 시간소모-감정격양-독단적 진행 제어효과

◇ 팀별(가족) 훈련의 기능--- 팀웍 효과를 높임.

## 5. 본 프로그램 운영상 유의할 점

(1) 프로의 개성화--- 목적의 단일화-생활과 친화 외의 기타 문제 취급 제한

▶ 和同 I 과 연계선상에서 단계별, 특성별 프로그램 개발--- 和同 I, II, III으로-

(2) 진행의 실질화--- 권위 지양/참가자 중심-결제, 해제사, 해결사 지양

(3) 참여자 주체화--- 참가자가 직접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기

(4) 기재를 통한 의사전달--- 다양한 표현의 즐거움과 효과 익히기.

▶ 과제: 표현양식 개발 및 프로그램 수집.

## 6.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구들

1-1.

◇생활 훈련이 가능한 소규모 훈련원/지방권 교단도량-적정 한 형태로 구조변경	(1)교당구조의 이동모형이 될 수 있는 생활공 간 설정(2)10쌍 정도 수용 가능한 생활공간 (3)8개 정도의 숙소. 침식도구. 연료구비...
관 리	참가자들이 직접 취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체제를 갖출 것.

1-2.

기본 재료 I (보기)	@빵,쌀,된장,김치(구입),생선,단무지,오뎅,계란,두부(많이),멸치(많이),참기 름,들기름,간장,고추장,미역,다시마,식초,감자,고구마,카레재료 정도 준비./ 차감(커피. 현미녹차.홍차. 썬차. 울무차 등)
기타	필요에 따라 구입.

1-3.

기본재료 II	◇크레파스. 물감. ◇종이--도화지(대.중.소) ◇A4 용지 /필기용
◆기타	◇표현을 돕는 다양한 도구들.

2. 진행인---3인 정도의 도움자 (남1, 여2)

▶ 한 달에 한번씩 팀별로 돌아가면서 진행.

3. 대상---교당교무와 부교무. 처음 부교무를 맡는 교무와 부교무. 초임발령 부교무  
와 교무.

◇ 참가조건---☆자발적 지원팀에 한해서.

◇ 일정---3박4일 과정, 5박6일 과정---한동안은 3박4일 프로로 중점 운영.

◇ 시기----월별 2회 정도로 상설체제(월-목)

◇ 참가자 준비물---참가비, 사진 1매, 필기도구, 잠옷, 기타 각자 필수품...코펠.  
버너세트(취향에 따라)



## 7. 진행 일정

### ◇ 첫째날 ◇

번호	시 간	진 행 내 용
1	오후 2시	참가자 등록-숙소배정(팀별로)
2	3시-5시	만남의 시간A : 자기소개장 써서 발표하기☺-*식사준비팀. 청소팀(5-6인조) 정하기.일과안내.
3	5시-7시	저녁식사(뷔페식?)
4	7시-8시	만남의 시간B : 합동그림 그리기를 통한 자기표현
5	8시-9:30	프로그램 안내☹ 및 희망사항 청취.
6	취침	팀별로 교무,부교무 2인조로.
7		

첫째날---긴장해소, 표현 이끌어 내기, 주제에 원거리 접근.

☺ 표현 연습---그림, 노래, 글, 춤?등 동원한 다양한 표출 프로그램 동원하여 긴장 풀리고 즐겁게/최대한 부드럽게 진행.

☹ 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의 취지 설명과 쓰기(기재)에 대한 협조 요청.

### ◇ 둘째날 ◇

번호	시 간	진 행 내 용
1	5시-6시10	기상. 좌선
2	6시15분-25분	오리발 산책☺
3	6시30-8시	청소. 아침식사(팀 바꾸어서). 공사 (일과안내)
4	8시-9시	첫날 취침, 아침산책 및 식사준비에 대한 감상기재☹
5	9시-10시	팀별 대화(2인조)-기재한 것을 읽어주기
6	10-12시	전체시간/소감 및 조정안 회화
7	12시-1시	감자찌기 5인조(1조)/낮잠 및 휴식분위기꾸미기(2인조)/과 일,차,과자(3인조)
8	1시-3시	설교안 짜기 : 팀별로 가족의 중요성을 주제로 대화 가진 후 각자 정리해 보기.
9	3시-5시	4인1조--2개교당팀---묵상과 회화
10	5시-7시	저녁식사 팀별로(4인조)♡
11	7시-9시	가족애. 타종교 선후진간의 갈등과 만남(천주교 참조)등에 관한 비디오 관람 후 하루동안의 소감 기재.
12	취침	6명은 함께, 4명은 혼자서.

둘째날 ---주제 접근, 팀별 친애 프로, 표현과 발표 정상화.

☺오리발 산책---적정한 시간에 막간을 활용.

☺기재---기재의 목적과 범위를 확실하게 인식 시킬 것.(방법은 자유)

♡저녁식사---교무팀이 부교무팀에게 밥해서 차려주기.

### ◇셋째날◇

번호	시 간	진 행 내 용
1	5시-7시	기상. 산행 --팀별로 어디든지 알아서/식사? 알아서?.
2	7시-9시	청소. 아침식사. 공사(일과안내).
3	9시-10시	전날 취침, 산행. 식사시간에 대한 감상 기재-안내를 자상하게-
4	10-12시	기재안 발표
5	12시-4시30	점심준비팀 따로 없이 /빵으로, 과일, 차, 과자로 점심들면서 팀별 종합 (생활)설계안 짜기
6	4시30-7시	저녁식사 및 법회준비-- 식사준비팀 (5인) 행사준비팀/법회(야회) 준비팀 2인. 간식준비팀 3인등
7	7시-10시	3일간 생활에 대한 느낌발표 및 감상
8	취침	부교무팀:교무팀
9		

☺아침산행---멋지고 자유로운 도반의 삶 연출하기--전날저녁 자세히 안내할 것

☺아침식사---여행지에서의 아침---구내든 매식이든 팀별로 자유.

☺점심식사---남은 음식 먹으면서 자유롭게 진지하게 이상적인 교당생활을 꾸며요.

### ◇ 넷째날 ◇

번호	시 간	진 행 내 용
1	5:30-6:10	기상. 기도---상대에 대한 사랑과 축원의 기도
2	6:15분-25분	오리발 산책
3	7시-9시	대청소. 식사. 5인조 팀별로/식사직후 공사 10분-일과안내
4	9시-10시	전날 취침, 기도, 공사시간까지에 대한 감상 기재
5	10시-12시	감상 및 장기(무엇으로든지 자유로 소감 발표)
6	12시-12:30	팀별 편지쓰기(독백식-사진보고 쓰기/본인이 보관)
7		각자 교당으로.
8		

## 맺는 말

마음공부를 주체로 하는 교단으로서 대중사님의 진리적이고 사실 지향적인 훌륭한 가르침을 본받아 성장해 온 우리인만큼 이제는 인간의 무한한 自性을 열어갈 수 있는 대중적이고 객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나아가서 그동안 집단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교단 프로그램에 서서히 개인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첨가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된다. 아직 심리학적인 검증이 없고 미숙한 연륜이지만 그간의 교단훈련과 외부 훈련을 경험하면서 얻은 결론은 행동수정적이고 자극적인 프로그램은 일회적 유행에 그치기 쉽다는 사실이었다. 본 프로그램의 경우 지극히 평범한 일과를 주체로 하여 지나칠 만큼 잔잔하고 때론 자극이 없어 흥미를 유도하기 어렵게 보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心佛 一圓相에 대한 확고한 신앙에 바탕을 두고 개개인의 불성에 기반하며 특히 이를 日常(생활)속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생활의 훈련이야말로 허망한 기대보다는 실질적으로 삶의 수준과 효율을 높일 수도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영구적인 자리매김을 가능하게 하리라는 심증이 굳어지게 되었다. 여기 예시된 프로그램은 구조나 진행상의 기제가 여러모로 미숙하지만 교단적으로 공인을 받아 원만한 팀웍이 형성되면 상당부분 보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만 동거 교역자의 화합을 위해 그들을 공동생활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훈훈하고 잔잔한 가족적 동지애를 유도한다는 아이디어에 교단적 관심이 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감하였다. 단지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만으로도 보다 좋은 대책의 탄생을 촉진하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